

중국 철강 시장의 잠재력과 대중국 수출

朴在元*

3대 수출 시장으로 급부상한 중국

갈길이 바쁜 우리나라 수출이 中國 特需의 급냉으로 연말이 다가오면서 더욱 어려운 국면을 맞게될 전망이다. 상반기에 중국 특수의 혜택을 가장 많이 누렸던 철강 산업은 그만큼 對中 수출 경기의 냉각으로 인한 충격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 금년 1~7월의 對中 철강 수출액은 7억 4,500만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66%나 증가했으며 월 평균으로는 1억 달러를 넘는 기대 이상의 실적을 올렸다. 그러나 8월에는 수출액이 6,400만 달러로 급락했으며 작년 8월 대비 증가율은 2.6%에 불과했다. 물론 이러한 수출 둔화는 중국 정부의 긴급 수요 억제 정책으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풀이되지만 그 기간이 예상 외로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서 업계에 불안감을 주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 철강 산업에 있어서 중국 시장의 존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장기적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의 초대형 시장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도 그렇고 중·단기적으로 우리 철강 산업의 수급 균형을 유지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점

에서도 의미가 크다.

우리나라 철강 산업의 최근 3년간 평균 수출 비중¹⁾은 26.2%로서 세계적으로 매우높은 수준이다. 특히 작년에는 총수요 3,160만 톤중 수출 수요가 975만 톤에 달함으로써 수출 비중이 30%를 넘어섰으며 앞으로도 이 비율은 쉽게 낮아지기 어려울 전망이다.

작년의 철강 수출 975만 톤 가운데 대 중국 수출은 180만톤으로 18.5%의 점유율을 보였으며 올해는 이미 20%를 훨씬 넘어섰다. 결국 중국 특수가 우리 철강 수출의 20% 이상 또는 총수요량의 5% 이상을 소화해 줌으로써 작년 초만 해도 불황의 기운이 역력했던 철강 경기를 상승세로 되돌려 놓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앞으로도 대 중국 수출이 적어도 이 정도 수준에서 유지되어야만 공급 과잉이나 가동률의 하락을 피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당장 눈앞에 닥친 문제는 중국의 소위 '巨擘經濟調整'이라는 경기 진정책이 얼마나 장기화될 것인가하는 것이다. 금년 상반기에 GNP 성장률 13.9%, 도시 지역 물가 상승률 17.4% 등 경기 과열을 알리는 지표들이 속속 나타나자 중국인민은행은 지난 5월과 7월 두

* 선임연구원, 연세대학교, 산업분석 전공.

1) 100x수출/(내수+수출)

차례에 걸쳐서 금리 인상을 단행하고 부동산 투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등 긴축 정책을 실행에 옮겼다. 그러나 사회간접자본 정비를 위한 중점 투자 사업 등은 차질없이 수행할 것으로 알려져 이번 긴축 정책은 제한적인 것이 될 것임을 시사하였다. 따라서 朱鎔基를 구심점으로 한 중국의 현 경제팀이 바뀌지 않는 한 철강 수요의 둔화 혹은 감소 추세가 오래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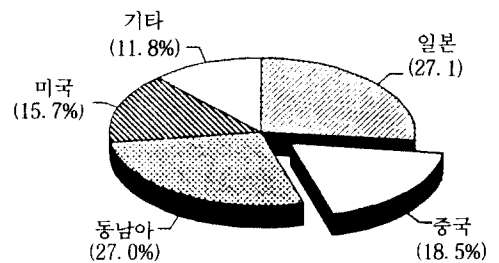
그러나 지난 1989년에 행해졌던 ‘治理整頓’이란 긴축 정책의 영향이 2년 이상 지속되었음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쉽게 낙관 할 수만은 없다. 특히 중국의 경제 상황은 사회주의 경제에서 시장 경제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기 때문에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常存하는 것이 특징이다. 철강 수입량의 변동 추이를 보아도 1986년에 1,740만 톤이던 것이 1991년에는 그 1/4.5인 390만 톤으로 급락함으로써 중국 시장에 대한 예측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 주었다.

중국은 1986~90년의 제7·5계획 기간 중국 민총생산이 연 평균 7.8%씩 성장했고 광공업은 13.1%, 사회고정자산투자 19.8%, 기본건설 17.1% 등 철강 수요 부분의 고속 성장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철강 수입이 크게 감소했다. 이것은 이 기간 중 철강 생산이 연 평균 7.2% 씩 증가함으로써 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보다도 철강 수요량 자체가 7,000만 톤 내외(粗鋼基準 名目 消費)에서 제자리 걸음을 한 것이 더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7·5계획 기간

중 수요 산업의 급 성장에도 불구하고 철강 수요가 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무튼 금년말과 내년의 중국 철강 시장은 조정 국면을 거치게 되겠지만 수요 둔화의 폭과 지속 기간을 짐작하기에는 현 상황이 너무 유동적이다. 당장 11월에 있을 제14기 중앙위원회에서 고속 성장 정책을 추진해온 朱鎔基의 경제 노선에 대해 어떤 평가가 내려질지 예측하기가 어렵다. 만일 이 회의를 계기로 고도 성장론이 쇠퇴하고 대신 8월말 업무를再開한 李鵬의 안정 성장론이 대세를 장악하게 되면 중국 철강 시장은 물론 중국 경제 전체의 조정기가 의외로 장기화될 것이다.

<그림> 우리나라 철강 수출의 국별 구성비



<1992년 총 수출 975만 톤>

중국 철강업의 성장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당시인 1949년 철강 생산량(粗鋼基準)은 15만 8,000 톤에 불과했으나 1992년에 8,000만 톤의 생산 실적을 올린

으로써 양적으로는 비교적 빠른 성장세를 보여주었다. 기간별로는 1960년대에는 1,000~2,000만 톤 대에서 심한 기복을 보이다가 1970년대부터는 연 평균 약 7% 정도의 안정적인 성장 궤도에 진입했다. 6·5계획이 시작된 1981년 이후의 철강 생산량과 관련 경제 지표 성장률을 비교해 보면 6·5계획 기간인 1981~85년에는 연 평균 GNP 성장률이 10%인데 반해 철강 생산 증가율은 이 보다 훨씬 낮은 4.8%에 머물렀다. 7·5계획 기간인 1986~90년은 GNP 7.8%, 철강 생산 7.2%로 비슷한 수준의 증가율을 나타내었으며 91년과 92년에도 이러한 추세가 계속되었다. 이에 따라 6·5계획 중에는 소모 철강의 많은 부분을 수입에 의존했으며 7·5계획 이후 1991년까지 수입 의존도가 낮아졌다가 1992년부터 다시 높아지는 추세에 있다.

높아졌으며 電氣爐鋼은 21%대에서 큰 변화가 없었지만 생산량은 1978년 680만 톤에서 91년에 1,500만 톤으로 2 배 이상 증가하였다. 또한 銑鐵/粗鋼의 비율과 톤당 에너지 소비량이 매년 낮아지고 있고 鋼材/粗鋼의 비율과 연주비, 합금강 비율은 매년 높아짐으로써 중국 철강업의 질적 성장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개방·개혁 정책의 실시 이후 외국의 선진 기술과 관리 방식을 적극 도입한 결과 1978년 이후 10년간 철강 생산량은 87%가 증가한 반면 에너지 소비량은 20% 증가에 그치고 있다. 철강업이 국가 전체 에너지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78년 12.91%에서 88년에 9.89%로 감소하였다.

중국 철강 시장의 최근 동향

<표1> 철강 생산과 경제 성장

	철강생산	GNP	공업생산
1981~85	4.8	10.0	12.0
1986~90	7.2	7.8	13.1
1991	7.0	7.0	14.2
1992	12.7	12.8	18.0

자료 : 「중국강철공업연감」
 「중국통계연감」
 주 : 연평균 증가율(%)임

질적인 면에서도 아직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개방·개혁이후 꾸준한 개선이 이루어졌다. 製鋼爐別 구성비를 보면 구식 平爐鋼의 비중이 1978년 35.5%에서 1991년에 18%로 낮아진 반면 轉爐鋼의 비중은 42.9%에서 60%로

작년에 12.8%의 실질 GNP 성장률을 보였던 중국 경제는 금년 상반기도 13.9%라는 고속 성장을 계속하였다. 철강 업계는 건설, 자동차, 전기·전자 등 철강 수요 산업의 소비 급증에 대응하여 작년에 8,000만 톤(粗鋼 基準)을 생산한데 이어 금년 상반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11.4%가 증가한 4,329만 톤을 생산하였다. 그러나 국내 생산만으로는 수요 충족이 어려워 일본, 한국, 러시아 등 주변 국가들로부터의 수입도 크게 늘렸다.

중국 정부는 금년 3월의 第8期全人代 第1回會議에서 경제 성장 속도를 가속화함으로써 2000년까지 GNP를 1980년의 4배로 확대시킨다는 경제발전 10개년계획의 목표를 1997년

까지 조기 달성한다는 방침을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철강 산업 부문도 1997년까지 생산 목표를 9,400만 톤으로 책정하였다. 만일 이 계획이 성공하면 2000년에 1억 톤을 생산하겠다는 당초 목표를 앞당겨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철강 생산 증대를 위해 중국은 기존 제철소 증설과 신규 대형 제철소 건설을 적절히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粗鋼 생산의 爐別 구성비를 보면 轉爐鋼의 증가, 電氣爐鋼의 현상 유지 및 平爐鋼의 감소라는 큰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다만 점진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던 平爐鋼 생산의 절대량이 최근 늘어났는데 이것은 철강 수요의 급증으로 인해 철강 업체들이 전로, 전기로는 물론 老朽 平爐의 설비도 최대한 가동한 데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다.

鋼材의 생산 품목수는 최근 10년 동안에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품목별 구성비는 條鋼類가 61%, 판재류 25%, 강관 및 기타가 14%이다. 우리나라나 일본의 경우는 이 비율이 대개 40 : 50 : 10정도로 거의 비슷하다. 중국의 조강류 생산 비중이 월등히 높은 것은 壓延 部門의 후진성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앞으로 중국 철강업의 선진화를 위해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1992년과 93년의 품종별 생산 통계는 알 수 없으나 조강류의 주 수요처인 건설 부문이 최근 과열 현상을 빚었음을 감안할 때 조강류의 생산 비중이 낮아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판재류의 생산 비중이 낮기 때문에 수입의 품목별 구성비에서는 판재류가 약 40~

50%로 조강류의 20%보다 월등히 높은 현상을 나타내었다.

<표2> 한·중·일 철강 생산의 품종별 비교
(단위 : 1,000 톤)

	중 국	한 국	일 본
조 강 류 구성비(%)	34,510 (61)	10,094 (36)	33,858 (39)
판 재 류 구성비(%)	14,200 (25)	14,440 (52)	44,273 (51)
기 타 구성비(%)	7,672 (14)	3,294 (12)	8,581 (10)
합 계	56,382 (100)	27,828 (100)	83,712 (100)

자료: 「중국강철공업연감」, 「한국철강통계연보」,
「일본철강통계요람」

주: 1) 기타는 강관, 주단강, 외륜의 합계임.
2) 1991년 실적임.

한편 철강의 국내 소비는 91년 7,104만 톤(粗鋼 名目 消費)으로서 일본의 약 70% 수준에 달했으며 구 소련, 일본, 미국에 이어 세계 제 4위의 철강 소비국의 자리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1인당 소비량을 보면 61.5Kg로서 일본의 1/10에도 못 미쳤고 세계 평균인 136.4Kg에 비해서도 절반 이하 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나 1인당 GNP가 중국과 비슷한 350 달러 수준에 있는 다른 후진국에 비하면 1인당 철강 소비량이 높은 편에 속한다. 또 만일 중국의 공업화가 급속히 진전되어 1인당 철강 소비량이 일본(800Kg)이나 한국(600Kg)의 수준에 달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중국 한 나라의 철강 소비량만 해도 현재의 전세계 소비량인 7억여 톤을 능가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따라서 중국의 철강 소비 수준을 평가하거나 전망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1인당 국

민 소득에 대한 1인당 철강 소비량의 변화 모형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국토가 넓고 인구가 많으며 지역적 경제 구조의 격차가 심한 중국의 특성을 고려한 철강 소비 수준의 평가 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80년대말부터 91년까지 철강 소비량은 6,000~7,000만 톤 수준에서 정체 상태를 보이다가 92년부터 급격한 증가세로 돌변하였다. 92년에는 약 8,800만 톤에 이르렀고, 93년에는 1억 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²⁾

92년의 강제 수출은 鋼塊, 半製品를 포함하여 248만 톤으로 91년의 349만 톤에 비하여 29%가 감소했다. 품종별로는 條鋼類가 수출의 50%를 차지하였고 동남아 제국과 일본이 주요 수출 대상국이다. 한편 수입 면에서는 92년에 899만 톤(강제 기준)으로 91년에 비해 2.3 배로 늘었다. 92년의 최대의 수입 대상국은 여전히 일본이었으나 일본의 점유율은 91년의 58%에서 30%로 크게 낮아졌다. 대신 한국, 러시아 등으로부터의 수입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수입 급증, 수출 감소로 인해 91년 거의 균형을 이루었던 철강 무역수지가 대폭적인 적자로 변화했으며 93년에는 적자 폭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전망과 과제

앞서 언급했듯이 중국 철강업 및 철강 시장의 장래는 대단히 유동적이다. 그러나 중국의

개방·개혁이 이미 역사적인 大勢로 자리를 잡았다고 볼 때, 중국의 시장 경제화 및 공업화는 필연적인 변화라 할 것이다.

92년과 93년에 12~13% 대의 초고속 성장을 한 중국 경제는 94년에 약 8%로 성장률이 떨어졌다가 95년부터 2000년까지 9%대의 고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WEFA의 전망치) 2000년의 철강 수급 전망을 보면 생산에 있어서는 중국 정부의 계획대로 1억~1.1억 톤 정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지만 수요에 있어서는 최하 1.1억 톤에서 최고 2억 톤에 이르기까지 전망의 편차가 심하다.

일반적으로 중국내서의 전망치는 매우 낮은 반면 일본 등 외국에서 보는 전망치는 상대적으로 높다. 중국내에서도 冶金部 등 중국의 당국자나 철강업계 인사들이 가장 보수적인 전망을 하고 있으며 연구소나 학계에 있는 사람들은 철강 수요가 당국의 예상보다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하는 추세이다.

중국 철강 수요의 장기 전망을 보다 낙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근거는 먼저 철강재가 強度, 加工性, 價格, 用途 등의 측면에서 다른 代替素材에 비해 여전히 현격한 비교 우위를 가지고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중국과 같이 공업화 초기에 있는 나라에서는 신소재의 철강 대체율이 상대적으로 낮을 것이다. 오히려 지금까지 石材, 木材 등 원시적 재료를 이용하던 부문이 철강재로 전환하는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중국은 철강 재료의 飽和 程度를 말해주는 1인당 철강 축적량이 현재 0.8톤(총 축적

2) 국제철강협회(IISI)의 조강명목소비 기준에 의한 전망.

량 9억톤, 인구 11.4억명)으로 최저 수준에 있기 때문에 그 만큼 소비 증가의 여력이 막대하다는 점도 낙관론의 근거가 된다.

위와 같은 요인들을 감안하여 중국 首鋼 研究所가 1992년에 전망한 바에 의하면 2000년까지 GNP 성장률을 8%로 잡을 때 2000년의 철강 소비량은 粗鋼 기준으로 약 1억 4,000만 톤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국 철강 산업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꼽을 수 있다.

첫째, 설비 신증설이 보다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베세머(Bessemer)轉爐法이 개발된 이후 100년만의 기술 대변혁이라 할 만한 신 기술들의 실용화를 목전에 둔 현 시점에서 기존 기술에 의한 대규모 설비 투자에 전력 투구하는 것은 위험 부담이 대단히 크기 때문이다.

둘째, 생산 품목 구성비의 선진화를 추진해야 한다. 현재 61 : 25 : 14인 조강류, 관재류 강관류의 비율을 개선하여 관재류의 비율을 40~50% 수준으로 끌어 올려야 한다. 관재류 부문의 강화는 중국 산업 구조의 고도화를 촉진시키는데 꼭 필요한 전제 조건이 된다.

셋째, 원료, 에너지, 인력의 방만한 관리 행태를 과감히 개선하여 생산성 향상을 꾀하여야 한다. 특히 인력 관리 면에서는 과거 개방 이전의 관행에서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서 앞으로 인건비가 높아지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原材料 확보를 위해 국내 철광석 개발 사업과 해외 투자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철광석 매장량이 500억 톤에 달

하지만 품질과 채굴 조건이 나빠 경제성이 있는 것은 250억 톤에 그치고 있다.

많은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중국 시장은 우리 철강 업계의 새로운 주력 시장으로서 그 중요성이 높아질 것이다. 중국 정부의 계획대로 2000년의 중국 철강 생산량이 1억 톤을 넘는다고 해도 철강 내수가 1억 4,000만 톤일 경우, 최소한 4,000만 톤은 수입해야 한다. 만일 우리 나라가 92~93년의 중국 시장 점유율(중국 수입 철강중 한국산의 비중) 20%를 유지한다면 2000년에 약 800만 톤을 수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철강 수요가 이미 쇠퇴기에 접어든 선진국 시장에 대한 수출 부진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한 물량이다. 우리 업계는 보다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중국 시장 공략을 위한 전략 수립에 착수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 ♣

참고 문헌

- 趙祥驥, "鐵鋼業における 日中産業協力", 「NIRA 政策研究」, 日本総合研究開発機構, 1991. 2.
- 殷端鈺 外, "中國鐵鋼業의 現狀と 展望", 「鐵鋼界」, 日本鐵鋼聯盟, 1992. 9.
- 産業新聞社, 「中國鐵鋼産業總覽」, 1991. 2.
- 王志孟 外, "2000年 我國鐵鋼工業需求량 豫測分析", 「首鋼研究與開發」, 首鋼研究與開發公司, 1992. 5.
- 冶金工業部, 「1992年 中國鐵鋼工業年鑑」, 1992. 9.
- 韓國鐵鋼協會, 「鐵鋼報」, 各號